

“장성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스타 셰프 에릭 리퍼트 장성 방문 사찰 음식·대표 특산물 등 소개 “사찰음식 철학 깊은 감명 받아”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추진

장성군이 최근 스타 셰프 에릭 리퍼트의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등 ‘미식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군은 k-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 시행 등 음식을 주제로한 장성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어 장성 지역만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려 ‘미식 도시’로서 자리매김할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릭 리퍼트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미식 도시 장성’을 방문해 장성 관광명소를 탐방하고 장성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체험했다.

에릭 리퍼트는 미국 뉴욕의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 셰프다.

동양, 특히 불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

는 2012년 사찰음식의 매력에 빠져든 이후 청정자연에서 식재료를 얻는 방식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로 보고 줄곧 옹호해 왔다.

에릭 리퍼트는 이번 장성 방문에서도 백양사 천진암을 찾아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공양 준비 과정을 참관했다. 요리 과정을 수행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찰음식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장성군은 이어진 체험행사에서 대표 특산물인 새싹삼과 전통기름장, 편백용품 등을 에릭 리퍼트에게 소개했다. 행사를 마친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활동모임체(액션그룹)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에릭 리퍼트는 △축령산 숲명상 △청년 웨프와 미식 토크 콘서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서예 체험 △전통주 체험 등에 참여하며 장성이 지닌 다양한 매력에 대해 알아봤다.

에릭 리퍼트는 마지막 순서로 둘러본



김한중 장성군수(왼쪽)와 에릭 리퍼트(가운데) 셰프가 최근 장성 특산물인 새싹삼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장성코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서 “미국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곳이 드물다”며 찬사를 남겼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군은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케이(K)-사찰음

식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식 도시의 매력을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에릭 리퍼트의 방문이 장성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복숭아 탄저병 예방 전남도농기원 등과 현장 컨설팅

화순군은 지난 23일 도곡면 대곡리 복숭아 농가에서 농촌진흥청 중앙예찰단,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복숭아 탄저병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컨설팅에서는 △농가 의견 청취 △과원 환경 분석 △탄저병 발생 예방 △방제 방법 △나무 관리 요령 등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탄저병은 탄저병균의 감염에 의하여 생기는 식물의 병해로 고추, 배, 콩, 오이 등의 작물과 감나무, 복숭아나무, 갈매나무, 사과나무 등의 과수에서 각각 종류가 다른 탄저병균의 기생에 의해서 발생한다. 탄저병은 기온 25-30℃ 상대습도 70% 이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6월경 흔히 발생하지만, 올해는 1달 정도 앞서 발견됐다.

올해 5월은 25℃가 넘는 날이 12일이 넘고 강우 일수가 많아 탄저병 발생이 시기보다는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는 27일부터 2주간 농가의 탄저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담양 청소년동아리 버스킹 담양청소년문화의집

담양군 담양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5일 담양문화회관 광장에서 청소년과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담양 청소년동아리 월간 버스킹’을 통해 뜨거운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담양 청소년동아리 월간버스킹’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2월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이 3회차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전남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담양군 ‘담양육아·중고마켓’ 행사와 함께 열려 노래, 춤, 밴드공연 등 풍성한 공연으로 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담양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의 끼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담양 청소년동아리 버스킹이 담양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청소년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들에게 탁구, 포켓볼, 댄스실, 100종의 DVD 보유, 코인노래방, 30여종의 보드게임, 도서실 등 다양한 시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현대차-다지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착공

화순군은 27일 광덕지구에서 삼천리외곽도로까지 직선도로 연결 구간인 현대자동차-다지교간 도시계획도로(중로 1-21호선)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민선 8기 구북구 화순군수의 공약사항으로 화순을 외곽도로와 22호선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화순장례식장으로 돌아서 가야만 했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단되었던 도로 사업을 2022년부터 미보상 4필지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해 왔었다.

이에 화순군은 총연장 350m 왕복 4차선 도로개설을 위해 총사업비 45억 원 중 22억 원을 지난해 까지 투입해 5820㎡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설 공사는 지난 3월 총괄 발주되어 5월에 착공했으며 1차분 성토공정을 완료 후 잔여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로개설 공사가 끝나면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함평군은 지난 22일부터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매주 2회 총 8회 과정으로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신생아 관리법 교육 △산전 필라테스 △힐링 태교 수업(원예, 공예) 등 다양한 정보와 체험을 통해 임산부가 스스로 임신·출산·육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함평군은 △임신축하선물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300만~1000만원) △육아용품 무료대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5개 부처를 방문, 주요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함평군 제공

이상의 함평군수, 국고 현안사업비 확보 총력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방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건의

이상의 함평군수가 2025년 지역발전 동력 마련 및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군수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5개 부처를 방문하여 주요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지역특

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 △함평·해보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65억) △기후대응 도시숲사업(30억) △고막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371억) 등으로 국비 412억원(총사업비 2145억원)이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는 △구계소하천 재해예방사업(235억) △학교 방우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13억) 등 사업비 88억 원(총 사업비 795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상의 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운용 기조하에서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하

지 않으면 지역 주요 현안의 필수 예산 확보조차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을 뛰어넘어 군민이 풍요로운 함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단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요사업 74건 5385억원을 선정하고 전남도 및 중앙부처 예산 반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계 대응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곡성군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 상담소’ 운영

곡성군은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원활하게 구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JOB)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일하잡 상담소는 작년 운영된 일하잡(JOB) 버스를 발전시킨 형태로 올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곡성 관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곡성을 기차마을 전통시장·석곡면 전통시장·옥과면 전통시장·전남과학대학교 등을 방문해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JOB)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총 370여 명의 군민 중 242명이 일자리를 신청했다.

이번 사업은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 △일자리 상담 △직업 심리 검사 등 다양한 현장 상담이 진행됐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구직 동기 부여를 위한 기념품도 제공했다.

한편 곡성군은 구직자 발굴 및 구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JOB) 상담소’ 사업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